

제 195 호

성모 승천 대축일

1976. 8. 15.

숲 정 이

발행인	김 종 택
인쇄인	법 석 규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 560의 6
전주교구청 내 (전화 ㉠5098)

● 강론 ●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박 성 윤 신부

2천여년 동안 교회안에 전하여 내려오던 성모승천 교의는 1950년 교황 비오 12세에 의해 신덕도리로 선포되었다. 교황의 음성은 확성기를 통해 전세계에 울려 퍼졌다. -「나는 오늘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베드로 바오로와 나의 권위를 의지하여 천주의 하자없으신 모친 동정마리아께서 현재생활을 마치신 후 그의 영혼과 육신이 하늘의 영광속으로 올림을 받으셨다는 천주께서 계시하신 교리를 선언하며 공포한다.」

실상 하느님께서 마리아로 하여금 영원으로부터 구원사업에 참여토록 계획하셨다. 원조범죄 후 하느님께서 구세주의 약속과 더불어 인류의 원수를 쳐 이기는 승리에 참여할 여인에 대해 말씀하셨고, 또한 하느님은 마리아가 주의 말씀의 동의후 즉시 말씀의 강생이 이루어지도록 섭리하셨으며, 지상생활을 마치신 후에는 영혼 육신이 하늘의 올림을 받으시고 또 하늘의 여왕으로 인류에게 모든 은총을 분배토록 섭리하셨다.

교회의 가장 오래된 고전인 「니체포르카리스머」라는 책에 다음과 같은 성모승천에 대한 기록이 실려있다. - 「성모께서 임종하실 때가 가까워 왔다는 소식을 듣고 복음 전파 때문에 사방에 흩어져 있던 사도들이 다 모여 들었다. 그들은 모두 최후 인사를 드리고 임종하신 후 장엄한 예절을 갖추어 석중에 장사 지냈다. 그런데 동방의 사도라 불린 도마는 멀리 동양의 인도 가까이에서 전교하셨으므로 성모님을 안장한지 3일이 지나서야 도착했다. 그는 슬퍼울고 성모님의 모습이라도 마지막 최우려 동굴문을 열었을때 성모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성모님의 시신을 모셔 두었던 염포와 꽃다운 향기와 안개 같은 서광만이 드리워져 있을 뿐이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친을 부활시켜 천국에 모셔갔다고 찬미하였다.」

성모님은 가난한 근로자의 주부로 중첩한 생활을 꾸려 나가시면서도 자신이 비참해지거나 실망치 않았고, 단식의 몸으로 호적을 등록하러 먼 길을 떠나 갈때도 구세주의 모친이라고 우월감을 갖지 않았었고, 베틀레헴에도 착했을때도 자기 장부인 요셉에 대해 방한칸 얻지 못했다고 야속한 생각도 갖지 않았던 점이라든지, 장차 미구에 일어날 불가사의한 모든 일들을 눈앞에 두고서도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맡겼던 점, 불모의 땅 이집트로 정처없이 수백리 길을 아무 말없이 떠났던 점 등은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의탁했던 신앙인의 완전한 생활이라 아니할 수 없다.

마리아께 대한 신심과 공경이 희미해져 가는 이 시대에 은총을 충만히 입으신 마리아의 손길이 그 어느때 보나도 아쉽게만 느껴진다.

은총을 가득히 입으신 마리아여 우리 죄인을 위해 빌으소서. (아멘)
-군산 중등 전주교회



말과 마음

- 天心の 푸대접

- 去 8月 3日 字 逆光線 中 「天心の 푸대접을 어찌할꼬」는 「天心이 왜 고르지 못한다...안타깝다」는 뜻의表現이었사옵기, 일부 誤解에 해명합니다. -

문제된 8월 3일자 <역광선>의 내용이 무엇이었기에 中央日報은 8월 7일자 제1면 하단의 <역광선>란 바로 옆에 위와 같은 아주 짤막한 해명의 글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던가? 시비를 불리일으킨 문제의 글은 다음과 같다.

- 中部 嶺南 嶺東은 해갈, 湖南은 배고. 天心の 푸대접을 어찌할꼬. -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표현이다.

작년 10월 1일 현재의 총인구 센서스에 따르면 전라도와 제주도의 인구는 6백85만여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9.8%라고 밝히고 있다. 國民總和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현실정을 감안할 때, 국민의 5분의1이 호남지방에 살고 있는데 그렇게도 모진 표현을 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해명의 글>처럼 「안타까운」 심정에서 그런 표현이 나왔기를 진심으로 빈다. 만에 하나라도 그렇지 못하다면 문제는 정말로 심각해진다.

그런데 3일동안 이 지방에서 있었던 막후교섭(?)과 갑자기 벌어진 <일개월간의 무료구독 혜택 제공> 선심공세(?)의 함수관계를 생각하면 입맛이 씹쓸하다.

<해명의 글>만 해도 그렇다. 무언가 眞實이 결여된 듯하다.

<말(表現)과 마음>에 대해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당신들이 악하면서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소. 결국 마음에 가득찬 것이 입으로 나오는 법이요.」 (참조: 마태오 12장 33-37절, 루가 6장 43-45절)

숲 정 이 산책



3.1 사건 공판 방청기(13)

문 규 현 신부

8월 5일, 오늘도 분위기는 역시 마찬가지다. 오히려 8월 3일의 구형 공판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방청권을 소지했으나, 법정 입구에서 방청 거부를 당하여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10시29분 재판정에 들어선 판사는 8월3일의 공판 요지를 설명한 뒤 국선 변호인 3인을 소개하였다. 국선 변호인 선임 요지는 윤보선, 함석헌, 정일형씨가 70세 이상의 고령자로 자기 권리의 주장을 보호받기 위해 본 법정의 선처로 이루어진 것이란다.

국선 변호인 중 한사람은 8월 4일에야 위촉을 받아 공소장의 내용도 모르고 법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변호인의 양심상 변호할 수 없으므로 변호인 변경 내지는 시간적 여유를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윤, 함, 정씨에 대한 검사의 논고가 있었다.

이어 재판장은 이 사건의 구속 만기일이 9월 9일이므로 변론에 애로가 있더라도 8월 11일에 있을 위 세분에 대한 변론을 국선 변호인들에게 요청하자, 변호인 가운데 한분이 공소장 하나 보지못했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양심상의 문제며 허수아비가 될 수 없어 퇴청하겠다고 말하였다.

뒤이어 8월3일 검사의 구형을 받은 15인의 최후진술이

시작되었다.

김대중씨는 검찰의 논고가 황당무계하고 억지조작이 많아 이런 법정에서 최후진술은 아무런 필요가 없다고 최후진술을 거부했다. 뒤를 이어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최후진술을 거부했다.

이태영여사는 검사의 논고가 너무나 억측으로 조작되어 억울하고 분하다며, 검사나 판사는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라고 말했다. 3·1사건이 검사의 논고처럼 정권정탈을 위한 민중의 봉기가 아니고, 3·1절을 기해 민족의 방향제시를 위해 있었던 모임으로 민주주의의 핵심인 자유와 평등을 찾기 위한 행동으로, 일부 소수의 의견이 아닌 양심의 소리였다고 강조하며 역사의 선포가 더욱 무서운 것이라고 제삼 강조하였다.

지연관계로 최후진술을 다 적을 수는 없지만, 피고인들의 담담하고 평온한 행동거지는 누가 심판자이며 누가 죄인인가를 구별하기 어렵게 한다. 비록 새장에 갇혀있는 새라도 그 본성은 창공을 훨훨 나는 것처럼, 민주주의의 본성은 서구식 민주주의든 한국식 민주주의든 간에 진리와 양심에 의한 자유와 평등이며 이것에 의하지 않는 것은 속력이요, 독재라는 것이다.

담담하고 평온한 피고인들의 모습(본회퍼)의 「나는 무엇?」이라는 짓키를 연상케 한다.

성모 몽소 승천에 드리는 말씀

김 영 구 신부

성모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후에도 세상 생활을 15년이상이나 더살으시면서 사도 요한의 정성어린 효성을 받으시다가 소아세아 에베소에서 선종하신 후 사흘만에 역시 부활승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세세대로 믿어 내려오면서, 인류의 최대 경사로 축하해온 성모 몽소승천이 이제 새삼 문제될까닭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모 공경의 후퇴를 모색하던 물의 후유증인듯 성모님의 저 몽소승천 축제의 자세가 지극히 미온적이어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성모 공경이 사실상 후퇴한 것처럼, 한구석으로 몰아치려는 듯한 움직임이 우리 나라에도 상륙한 듯한 괴상한 정신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몇가지 예를 들면, 성당의 규모를 최현대식으로 미화개선했다는 구실로 오랫동안 봉안되어 술한 교우들의 신심깊은 공경을 받아오던 성모상과 자자성모상이 철거되어 버린 허전한 공간을 당지에서도 보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왜정 때에 우리 교회 안에 소위(가미다나)를 놓도록 한 슬픈 역사를 가졌고 또 경험한바 있습니다. 오늘에는 옛날의 그 강요가 자진으로 성모상이나 14처상을 철거하는 이 시대적 아이러니를 물어야 할까! 웃어야 할까?!

8월은 우리 나라 기후로 보아 일년중 가장 무더운 때이며 동시에 광복절이 걸친 달입니다. 8·15의 국가적인 그 영광된 제전에는 각자 제 나름대로 눈독과 몸부림을 치면서……우리 성모님의 몽소승천을 경하하는 예전에는 참배를 회피하려는 눈치작전을 하였던 이도 많았던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한여름 더위에 지치고 시달린 선량한 사람들을 그 몸과 마음을 시원히 쉬일수 있도록 바캉스로 남들처럼 날개꿈 풀어주지 않고 무더위 속에 잔인한 것이라는 등의 구실로 저들의 식어가는 신심에 동조하는 어떤 인사들은 대축일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듯 아침 일찍이 마니 밤늦게 위험한 물가에서 돌아와 미사한대로 메꾸고 마는 꼴은 그것이 성모공경의 진전인지 후퇴인지 현명한 독자들의 바른 판단과 신심깊은 반성있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지난 날 우리 선조들은 한여름 몽소승천을 맞이하게되면 본당으로, 주교좌 성당으로 가서 고해 영성체하고 사흘이고 나흘이고 먼 길을 걸어 구름같이 모여들던 그 불같은 열성을 재생시키는 모종의 운동을 벌였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더구나 신앙의 세속화의 우려가 절여가고 있는 오늘의 교회를 원형적인 모습으로 지키기 위하여! 하늘에 올림을 받으신 모후께 빕니다.

성프란치스코 재속 형제회

<전국대회 일정표>

때 : 1976년 8월 20~22일
 곳 : 전주 전동 천주교회

제 1일 - 총 회 <8. 20(금)>

10:00~12:00	등록	12:00~13:00	점심 식사
13:00~16:50	대회 및 총회	16:50~18:30	주교님미사, 기념촬영
19:00~20:00	저녁 식사	20:00~22:00	천교의 밤
22:00~	취침		

제 2일 - 지도자강습회 <8. 21(토)>

5:00~	기상	6:00~ 7:30	아침기도, 미사
7:30~ 9:00	아침 식사	9:00~11:50	지도자 강습회
12:00~13:00	점심 식사	13:00~16:50	지도자 강습회
17:00~18:50	교리 경시 대회	19:00~20:00	저녁 식사
20:00~22:00	회상의 밤, 영화 상영	22:00~	취침

제 3일 - 성지 참배 <8. 22(일)>

밤1:00~2:00	밤 기도	6:30~	기상
7:00~ 8:00	아침식사	8:00~12:00	순교자 묘지 참배, 합동미사
12:00~13:00	성체강복, 폐회		

위의 예정 일정표와 같이 2박 3일 동안 전국에서 모인 성프란치스코 재속형제회 형제들과 함께 즐거운 대화를 나누며 정기총회와 함께 지도자 강습회를 접하여 갖게 되었습니다.

성프란치스코 재속형제회 전국대회를 통하여 우리교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프란치스코 성인의 정신과 행적을 보여 주어 부조리한 우리의 생활을 개선하고 참된 신심으로 하느님과 가까운 생활로 이웃을 사랑하여, 평화의 자도가 되기 위하여 저희 전북지구 재속형제회에서는 우리 교구에서 갖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 전국대회를 무사히 치루기 위하여 식사할 수 있는 식기류와 칩거 준비가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에 협조하여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200여명 분)

처음으로 전주교구에서 갖는 행사이니만큼 많은 분의 참여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지에서 모여든 형제 자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친절하게 환영하여 2박3일동안 불편하지 않게 보살펴 주십시오.

형제들의 기도와 사랑은 형제들의 복음적 열성을 북돋아 줄 것입니다.
 (全羅北道支部 總務)

요심이 (159) 김병오



언제나 애용해 주십시오

임금님 찻집

전주 전신전학국 앞
 전화 ㉠ 5013
 김원준(야고버)

☆교형 여러분의 집☆

한국(流)온수온돌 부활상회

전주시 전동 3가 26~17번지
 <대곡교 사거리> 전화 ㉠ 2143
 전주 연락서 주원배(실베들)
 ◎언제나 찾아 주세요.

◎새롭고 저렴한 연탄 보일러 안내◎

한국(流)온수 온돌 공사

(본사지역 호남 출장소)
 이리시 인화동 2가65-16 (전화4940)

한 등 암(모이세)

금암동 ㉠5614	군산 3032
다가동 ㉠4342	부안 736
전동 ㉠2143	정읍 2157

☆각 지방 지점 구할 (계약금 없음)

★ 교우 여러분께 특별환인 우대★

후·칼라·출사환영

현대 사진관

전주 역전 오거리
 전화 ㉠ 5289
 김금순(메레사)

교우들의 선물 센터

전자, 새살림, 기념품, 완구

아세아 종합 스토아



강영욱 (로보알드)
 남문 신탁은행 앞
 전화 ㉠4007, ㉠7007

☆이(齒牙)는오복(五福)의요긴☆

수석(水石) 치과의원

원장 김현 (아오스딩)

전주시 중앙동 3가42-1
 <박 소아과> 앞
 전화 ㉠ 1665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공지사항

1. 이 누갈다 묘지 제대건립 : 제 4 지구 교우들의 성원을 바랍니다. (8월22일까지 주임 신부님께)
2. 문정현 신부님 위한 헌금 되제 <3,000원>
3. 조국을 위한 월요 기도회(16일(월) 8시30분) 가톨릭 센터.

(중앙) 전화 ③3651 주석보좌사 ③3874 제2보좌사

주임 신부 이한김이
임신부 신부 이대령
신부 김희상
권섭환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김종길
사도 회장 조성호

*성모님께 우리의 찬미와 정성을!

1. 성모 승천 대축일 영세식: 14일(토) 저녁 6시.
2. 어린이 첫 영세례: 오늘 공식 미사후 (주교님 집전)
3. 성모회 총회: 16일(월) 고덕 산장
4. 예비신자 교리 9월 5일(주일) 개강
5. 방지거 삼회 안내: ①일시-8월20~22일까지, ②장소-전동 성당 *전국대회이니 삼회 회원님은 빠진없는 참석 바랍니다.

1. 성당 개수 및 도장공사 기금 수입을 금주내로 빠짐 없이 합시다. (수입을 하지 않으신 교우 가정 방문을 하겠습니다)
2. 교무금을 속히 완납해 주세요. (9월로써 76년을 결산하는 년도말이고 10월 1일부터 77년도 예산이 집행됩니다.)
3. 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하기 특별 주일학교에 부모님의 관심과 협조로 120여명의 어린이가 뜻있게 재미있게 주일학교를 끝맺었습니다.

(노송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공아영
사도 회장 조해형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오택
사도 회장 박장춘

1. 성모회 정기 총회: 오늘 공식 미사후 ② 성모 회원님께서는 전원 참석 바랍니다.
2. 애령회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3. 재속 형제회 전국 총회: 8월 20일~22일까지, 장소-전동 성당 *20일 오후 5시 특별 합동미사 주교님 주례로 집전-전회원과 평신자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4. 구역장 회의: 8월 18일 오후 8시. ② 각 구역장님들께서는 해당 구역 반장님 명단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1. 반회합 17日(화)-9반(구12반), 18日(수)-10반(구16반), 19日(목)-11반(구15반), 20日(금)-12반(구13반일부) ②반회되시는 분은 적극 참여해 주세요
2. 22日은 상판 공사 후보 철폐! -많은 참석 바랍니다.
3. 도장 공사 헌금 신입자: 특별불헌-4반 손숙자(혜례나) 금부러치 3돈 및 헌금 5,000원, 제1반-강안중(7,000원), 강규선, 임정배, 정선봉(각 1,000원), 김수길, 이석조, 김근영(각 2,000원), 유복만, 김중배(각 3,000원), 최중기(1,500원), 박태호(5,000원) 최봉수(500원). ②감사합니다.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박종근
사도 회장 김용환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환철
보좌 신부 문규민
사도 회장 양윤모

1. 어린이 성세식: 8월 15일 저녁 미사에
2. *주일학교 여름방학: 15일-9월 3일까지, 개학-9월 4일(토요일)
3. 중·고등학생 임시총회: 공식 미사후
4. 미사 시간 변경: 평일 오전 6시
5. 교무금을 완납하여 본당 운영에 출납합니다.
6. 성당 건립 성금 수입: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지난주 헌금-윤양이, 조막내(각 3천원), 박화순(5만원), 엄기섭(3만원), 임애환(1만 5천원), 송복순(1만원), 김동선(5천원), 유제상(12만원) 계 236,000원. 누계 1,501,000원. ② 대단히 감사합니다.

1. 꼬미씨운 월례회: 오늘 오후 1시30분
2. 방지거 삼회 전국 회의: 20일-22일, 전동에서
3. 미사 안내: 주일<5시반, 9시, 10시, 오후 2시, 저녁 8시>, 평일<5시반, 저녁 8시>, 토요일<오후 5시, 8시>, 효자동 아파트<금요일 저녁 8시, 주일 오후 5시>
4. 제3회 전동 형제회: 오늘 10시 미사후
5. 전동 애령회를 해산하고 봉사분과에서 대령
6. 대의원(반회장): 저녁 미사후

* 각 본당의 금주간 소식과 지난주일 봉헌금 *

지구	본당	소식	봉헌금	지구	본당	소식	봉헌금
제 1 지구	고길수 신부	성모승천 대축일 행사 「마리아의 밤」 가든 음악회 개최 첫 영세례자들을 축하합니다. 데레사 자서전 경시대회 성모회, 친목 배구대회	8,500원 30,115원 4,125원 4,050원 19,505원	제 3 지구	주현동 창인동 황	☆ 축성서동지회 발족 신용협동조합 임시총회 성모승천 대축일 행사	원 43,750원 8,340원
		제 2 지구	대문울동합			사도회 분과위원회 개최 신용협동조합 월례회 전례위원회, 기공식. 성인 성세식. 성모승천 축일 행사	9,120원 52,960원 33,270원 16,440원 16,945원
제 3 지구	고금여산	여름 성경학교 시상식 친선배구 및 윗놀이 사도회 월례회	3,855원 15,855원 13,970원	제 5·6 지구	무장진남순임	중·고등 학생 전체모임 사도회 월례회 22일로 연기 각 공소 견진 교리 학생회 월례회 연수회 희망자 접수중	12,105원 4,920원 10,225원 15,585원 원